

양계농가의 소득 안정과 과제

중장기적인 육계 소득률 제고방안 모색 필요하다

정 민 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국내 양계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닭고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에탄올 수요 증가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여 육계농가의 경영비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육계 경영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육계농가의 소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질병 발생으로 육계농가의 피해도 매우 크다. 가축질병의 발생은 생산성 저하를 야기 시켜 농가의 경영과 소득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단기적으로 축산물에 대한 수요도 크게 감소하여 농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육계산업을 둘러싼 경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육계양계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육계 소득 변화 추이와 육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육계 소득 변동 추세 및 원인분석

육계농가의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육계 가격과 경영비이다. 육계 산지가격

은 1980년 kg당 834원에서 2006년 1,195원으로 연평균 1.4%씩 상승하였으나 물가상승분을 배제한 육계 실질 산지가격은 3.9%씩 하락하였다. 육계 산지가격의 불안정성은 2000년대 들어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최근 들어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가축질병의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상의 불안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육계 경영비는 1981년 kg당 866원에서 2006년 956원으로 연간 0.4%씩 증가하여 왔으나 물가상승을 배제한 실질비용은 4.4%씩 감소하여 왔다. 실질비용기준으로 경영비 중 병아리 구입비와 사료비는 감소하여 왔으나 육계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왔다(표 1). 육계 경영비의 불안정성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사료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경영비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육계 명목 소득은 1980년대 kg당 110원에서 2000년대 200원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물가변동 분을 배제한 실질 소득은 1980년 282원에서 187원으로 감소하였다. 육계의 소득 변동성은 2000년대 들어 다시 커지고 있으며, 소득 불안정의 원인은 주로 가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비의 불안정성은 2000년대 들어 작아졌지만 가격 불안정성은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육계 조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률은 1980년대 14.6%에서 2000년대 16.6%로 높아졌지만 타 축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육계는 소득률이 낮아, 육계 산지가격과 사료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소득이 크게 변동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1. 육계 경영비 및 구성비 변화 추이(실질)

단위 : 원/생체 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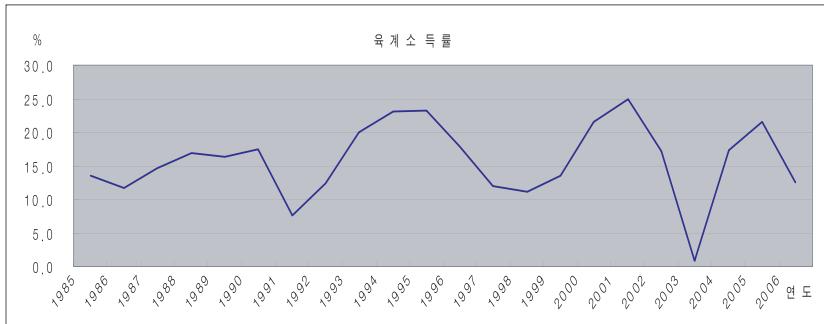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전체
가축비	352(17.7)	255(22.1)	248(27.8)	286(20.8)
사료비	1,488(74.6)	749(65.0)	488(54.7)	934(68.0)
방역비	33(1.7)	33(2.9)	31(3.5)	33(2.4)
상각비	21(1.1)	30(2.6)	46(5.2)	31(2.3)
경영비	1,994(100.0)	1,153(100.0)	892(100.0)	1,374(100.0)



〈그림1〉 육계 변동계수 추이

3. 향후 과제

육계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불안정과 사료비 변동 등에 따른 경영비 불안정, 그리고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점 등이 육계소득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된다. 수급상의 불안정은 수입물량의 변동뿐 아니라 국내 출하물량의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며, 가축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에 따라서 국내 수



〈그림2〉 육계 소득률 추이

요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다.

육계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육계 가격과 경영비가 안정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육계 소득률(부가가치)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육계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계열업체의 수급조절능력이 배양되어야 할 것이며, 가격변동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입이 필요하다. 육계 선물시장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농가는 선물계약을 통해 미리 매도하고 원료육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도소업체 및 육가공업체들은 선물계약을 통해 미리 매입함으로써 육계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경영비의 안정을 위해 사료 자급률을 제고하고 사료비를 절감해 나가야 한다. 국제 사료곡물 수급 상 불안정 요인으로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증가, 사료작황에 따른 공급량 불안정 등으로 사료 구입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태이다. 특정사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 사료비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주의 사료 수입에서 다양한 대체 사료 수입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사료공급기반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 논·밭 등 한계 농지에 사료곡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비를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료 구입단위를 확대하여 단위당 비용을 절감하고, 가축의 사료효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가축의 사료효율을 높여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축 개량을 통한 가축의 능력 향상, 경영주의 사양 관리 능력 배양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종계의 생산성을 높여 가축비를 절감해 나가야 한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육밀도 완화 및 축사환경시설 개선으로 폐사율을 저하시키고 육성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육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계는 소득률이 낮아 산지가격과 사료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소득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득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산지가격과 경영비의 안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소득률이 제고되어야 한다. 소득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기를 생산해야 한다. 닭고기 수입량의 변동으로부터 국내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육계농가의 소득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시장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계**